

# 머 리 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01년 10월의 한일정상회담에 의해, 한일 양국에서 한일관계사의 학설 및 해석의 현상과 문제점을 공동으로 조사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2년 5월에 개설되었다.

고대사를 담당하는 제1분과는, 한일 쌍방 3인씩 합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4세기부터 6세기의 한일관계사에서 주요한 문제를 테마로 하여, 공동으로 조사 연구하기로 하였다.

3년간에 걸쳐 총 20회의 합동분과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연구 주제와 회의 방향을 정한 후, 각 위원이 연구 발표를 하고, 활발한 토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고고학 분야의 게스트 스피커를 초빙하여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2차례의 좌담회를 열어, 4~6세기의 한일관계사를 둘러싼 여러 문제 및 앞으로의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외에 연구 주제와 관계가 깊은 사료, 유적에 대하여 각각 현지 연구자의 협력을 얻어 공동조사를 벌였다. 이러한 공동연구 및 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 교환에 의하여, 서로 양국 학설의 현상과 문제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깊이 할 수 있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3년간에 걸친 공동연구의 성과로서, 위원 개인의 논문과 좌담회 기록, 그리고 활동기록을 모은 것이다. 물론 한일의 역사 공동연구는 아직 시작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 연구 성과도 모든 고대 한일관계사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남은 문제도 많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한일 양국에서 공동연구 노력이 계속되어야 바람직하다.

본 보고서가 앞으로의 연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됨으로써, 한일 양국에서 한일관계사 연구가 더욱 진전되고, 양국의 역사인식에 대한 상호이해가 한층 깊게 된다면 다행이라고 하겠다.

2005년 3월 26일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1분과

한국측 위원      일본측 위원

金鉉球              石井正敏

盧重國              濱田耕策

金泰植              佐藤 信